

IFES

뉴스레터

2024년 8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IFES



**뉴스레터
23호(8월)
목차**

연구활동

1. 2024년 상반기 연구소 중점사업 실적	03
2. 학술활동	04
3. 교수 연구활동	06
4. Fellowship 사업	10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13

연구소 소식

1. IFES 동정	23
2. 언론 속의 IFES	24
3. IFES 도서관	27
4. 예정사항	32
5. 안내사항	34

연구활동

2024년 상반기 연구소 중점사업 실적

학술활동

교수 연구활동

Fellowship 사업

북한·국제 정세 동향



1. 2024년 상반기 연구소 중점사업 실적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결과 (1.1~6.30.)

세계 평화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연구소의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 개최: 총 21회

- △통일전략포럼 1회 △IFES-UNKS 공동포럼 1회 △평화포럼 1회 △삼청포럼 5회 △외국 전문가와의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13회

2. 북한 교재, 정기 간행물(학술지) 등 자료 발간: 총 15종

- 교과서: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1종
- 연구서: 『신냉전 시대는 도래하는가?』/ 『북한의 핵과 정치권력 변화』 등 2종
- Asian Perspective (No.1~2) 2종 / 한국과 국제정치 (제1~2호 봄, 여름) 2종
- 『2023 IFES 연차보고서』/ 『세계속의 IFES』 (2015~2024, 5년간) 등 2종
- 『IFES 뉴스레터』 (1월~6월) 6종

3.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

- ‘Fellowship 프로그램’ 3개국 6명 연구 진행
- 펠로 6명 대상 △유명인사 특강지원 △문화유적지 안보현장 견학 및 워크숍 △탈북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4. IFES 브리프: 총 11건

- 북한 「대의원선거법」의 수정·보충과 그 함의(1.8. 박서화 교수)
- 북한의 두 개 국가론 선언 평가 및 전망 (1.29. 김상범 교수)
- 동독의 대서독정책의 변화와 그 함의 (2.5. 박서화 교수)
-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등장과 시사점 (2.8. 최은주 연구원)
- 푸틴의 ‘북한의 자체 핵우산 보유’ 발언 의미와 전망 (3.19. 이병철 교수)
- 미일정상회담 주요 내용 평가와 함의 (4.18. 조진구 교수)
- 트럼프 재집권 시의 한미관계 (5.8.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와 일본 (5.29. 조진구 교수)
- 미완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평가와 전망: 중국의 전략적 대응 (5.31. 이상만 교수)
- 남북간 전단 문제의 경과, 전망 및 제언 (6.3. 최영준 초빙교수)
-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협정: 함의와 영향 (6.21. 임을출 교수)

5. 교육활동: 2건

-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외국인 학생단 방문 (5.20. 외국인 학생 40명)
- 2024 경남대 현장실습형 통일 심화교육 운영 (6.21.~22. 재학생 40명)

6. 시설관리 : 평화관 전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 완료 (7월)

2. 학술활동

가. 중국 상해정법대학 정부관리학원 교수진 방문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7월 18일(목) 15:00 통일관 2층 회의실에서 왕웨이민(Wang Weimin) 상해정법대학 정부관리학원장 일행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왕웨이민(Wang Weimin) 상해정법대학 정부관리학원장, 장츠(Zhang Chi) 부교수, 니우샤오핑(Niu Xiaoping) 연구원, 니우샤오(Niu Xiao) 강사와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 동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북중관계 상황과 최근의 북한 내부동향 △중국공산당 20기 3중전회 결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다.

한편, 양 기관은 싱크탱크로서 향후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면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나.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연구진 간담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7월 13일(토) 16:00 중국 산둥대 아태연구소 회의실에서 양노혜(楊魯慧) 산둥대 아태연구소장 일행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동 간담회에는 양노혜(楊魯慧) 소장, 주서건(朱緒健) 아태연구소 실장과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MOU 체결 △정기 세미나 개최(연 2회) △연구소 생산자료 상호 교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한편, 양 기관은 싱크탱크로서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 (산둥대 아태연구소)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연구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향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중시하고 실제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음.



3. 교수 연구활동

가. 중국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평가

(2024. 7. 22.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 중국공산당 정책결정과정에서 당대회가 개최된 3년차 시기에 개최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역사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정책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중국내외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 이번 개최된 20차 3중전회의도 미중간 갈등이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중국지도부가 어떠한 정책적 조치를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필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번 20기 3중전회의의 키워드는 ‘중국식 현대화’였고, 더 나아가 중국의 국가 역량을 더욱 확충해야한다는 기조 하에 ‘새로운 도광양회(新稻光養晦)’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본다.
- 현 시점에서 중국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백년만의 대변혁의 시기(百年大變局)를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의 진정한 굴기를 위해서는 중등국가수준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1978년 11기 3중전회는 ‘사상해방’을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스템의 전환을 조성했고, 이후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향한 전면 투쟁이 가속화되었고, 그 가운데 14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생소한 내용이 중국공산당에 삽입되었지만 시장메카니즘은 세계인들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바라보면서 외국인들이 투자와 기술 그리고 그들의 이윤 창출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다.
- 1978년 11기 3중전회가 저개발국가 위치에서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굴기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었다면, 2024년 20기 3중전회는 중등국가(middle state) 위치에서 2차 개혁개방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된 것이다. 20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심화 발전과 개혁개방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노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향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도광양회’ 모색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의 꿈은 ‘발전’과 ‘안전’과 ‘문명’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3축 이니셔티브의 완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의 목표를 2035년으로 정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벽히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현대화는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 지

는 것이고, 인민들이 행복하고 부유한 사회로 진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반 조성은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축적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 중국은 과거 저발전 상태에서 ‘양적 성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발전도상국에 있는 중등국가의 위치에서 고도의 과학기술로 이루어진 ‘질적 성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의 최종목표는 중국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자본축적을 통해 부유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저지하여 미국 중심의 단극시스템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갈등은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미중간의 ‘전략적 거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미-중 갈등과 복잡한 국제 환경 그리고 험난한 국내문제에 직면한 상황을 수용하면서 ‘안정 속 발전 추구(稳中求进)’라는 제2의 사상해방(解放思想)과 제2의 개혁개방(改革开放)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과감한 대미 전략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차 3중전회 분위기를 분석해보면 첫째는 중국지도부가 현재 중국이 당면한 국제사회 및 사회주의 현대화와 관련된 주요모순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당대 현존하는 중국 내외부 모순들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혁하고 대외개방을 심화 확대하려는 중앙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 셋째는 향후 중국이 글로벌 발전-안전-문명으로 이어지는 3축 이니셔티브라는 국가발전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한다. 20기 3중전회 회의공보에서도 부동산위기, 지방정부 부채증가, 중소기업 위기, 사회 안정을 위해 소득 분배 시스템 개선, 고용 창출 우선 정책, 자원배분 향상 위한 시장 개혁과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 개혁 심화 등에 대해 중국지도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점이다.
- 비록 중국지도부가 이러한 내외적으로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는 실천이다. 중국 현대사를 보면 중국공산당의 위기가 도래할 때 중국공산당의 돌파구는 ‘실천’인데 이는 중국공산주의 혁명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한 아주 중요한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유산이다. 오늘날의 중국이 존재하는 것은 위기 시에 중국지도자의 올바른 판단과 중국인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중국 외부의 관찰자들은 중국 개혁개방의 모토가 “사상해방(解放思想)”과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实践是检验真理的唯一标准)”라는 중국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정에서 작동한 커다란 명제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3. 교수 연구활동

나.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 1) 통일과 나눔 주관 연구용역 과제 공동연구자 참여
- 착수일: 2024. 7. 1.(월)
- 주제: AI시대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북한지역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
- 2)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2024년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 참석 발표
- 일자/장소: 2024. 7. 3.(수)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내용: (사회권)에 관한 제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북한 청년 문화권 권리침해 실태 및 개선방향
- 3) 사법연수원 주관 '2024년도 법관연수(한반도 통일과 법, 그리고 법원)' 특강
- 일자/장소: 2024. 7. 22.(월), 사법연수원
- 내용: 북한 내부 정세진단과 남북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조진구 교수

- 1) 일본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방문(7~8월)
- 내용: 한미일 안보협력 연구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UNKS-EAI 공동포럼' 참석 제1세션 사회
- 일자/장소: 2024. 7. 2.(화) / 북한대학원대 정산홀
- 내용: "한반도 통일에서의 국제사회 책임과 역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시각"을 주제로 진행
- 2) 아산정책연구원 日게이오대 아태연구소 공동 주최 '국제회의' 참석 토론
- 일자/장소: 2024. 7. 3.(수) / 아산정책연구원
- 내용: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 유지를 위한 현실적 방안 토의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외교협회 대학생글로벌리더십 과정 특강
- 일자/장소: 2024. 7. 23.(화) / 외교협회 회의실
- 내용: 2024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다. 언론활동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2024. 7. 1. 월)
- 내용: “기대치 관리가 필요한 한중관계” 제하,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나, 한중 관계를 현실적으로 봐야하는 이유
- 2) 코리아타임스 (The Korea Times) 기고 (2024. 7. 17. 수)
- 내용: “Setting the right level of ambition for Korea- China relations” 제하,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으나, 한중 관계를 현실적으로 봐야하는 이유
- 3) 한국일보 『안호영의 실사구시』 기고 (2024. 7. 29. 월)
- 내용: “핵 협의 그룹을 더 신뢰하게 된 이유” 제하, 윤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 기간 중 서명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확장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이유
- 4) 중앙일보 『안호영의 글로벌 포커스』 기고 (2024. 7. 31. 수)
- 내용: “트럼프냐 해리스냐 설부른 예측보다 치밀한 대응 전략이 먼저다”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동아일보 ‘월요초대석’ 인터뷰 (2024. 7. 15. 월)
- 내용: “트럼프 재선 땀 '스케줄 F로 반대파 업쇼앨دت...한, 북미협상 대비해야”
- 2) 연합뉴스 TV ‘뉴스워치’ 출연 (2024. 7. 22. 월)
- 내용: “바이든 사퇴 후폭풍...미 대선 구도 급변”
- 3)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 (2024. 7. 26. 금)
- 내용: “2024년 미국 대선”

권기원 초빙교수

- 1) 아주경제 기고 (2024. 7. 4. 목)
- 내용: “지방시대 AI 기반 서비스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추진해야”

4. Fellowship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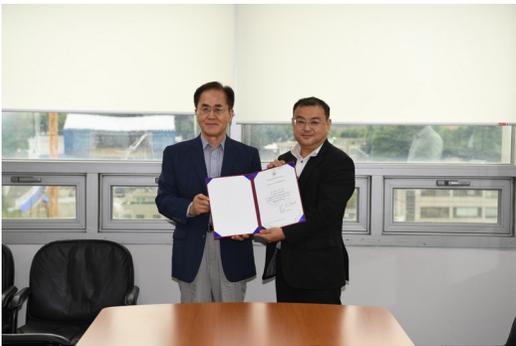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펠로 6명(中판 빈빈, 中리아오 무춘, 美김연희, 中양향봉, 日호리야마 아키코, 日미야모토 사토루)을 대상으로 7월중 △박재규 총장과 간담회 △통일부 초청 간담회 △2차례 특강 △2024년 해외신진학자 통일이카데미 발표·토론 참여 △국내 워크숍 참석 등을 실시했다.

가. 펠로 4차 O.T 실시

- 일시/장소: 2024. 7. 1.(월) 14:00 / 통일관 210호 회의실
- 참석자: 펠로 1명(日미야모토 사토루),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실무진 등
- 주요내용: 펠로 대상 △펠로우십 사업 취지 및 과정 소개 △주요 지원 사항 안내 △소내·외 시설 탐방 △질의·응답 등을 실시

나. 박재규 총장과의 간담회

- 일시/장소: 2024. 7. 5.(금) 10:30 / 통일관 총장접견실
- 참석자: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김선행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펠로 6명,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실무진 등
- 주요내용: 박재규 총장과 김선행 이사장은 펠로 6인을 소개 받고 △연구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 △연구에 필요한 자료 등은 소내 도서관(특수자료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



< 4차 O.T 실시 >



< 박재규 총장과의 간담회 >

다. 통일부 초청 간담회

- 일시/장소: 2024. 7. 15.(월) 12:00 / 한일관
- 참석자: 펠로 6명,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 국제협력과장 등
- 주요내용: 통일부는 △올해로 5년차인 Fellowship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 및 북한 연구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 △펠로 대상 한반도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줄 것을 요청 △Fellowship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약속

라. 특강 2회 실시

< 제3차 특강 >

- 일시/장소: 2024. 7. 2.(화) 14:00 / 통일관 210호 회의실
- 강연자: 문장렬 외교광장 부이사장(前국방대 교수)
- 참석자: 펠로 6명
- 주요내용: “한반도 미래 안보패러다임”을 주제로 △한반도 안보의 당면 위기와 원인 △전쟁 가능성 △평화안보와 공동안보의 개념 △자주국방의 정의 등에 대해 설명

< 제4차 특강 >

- 일시/장소: 2024. 7. 17.(수) 10:00 / 통일관 210호 회의실
- 강연자: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참석자: 펠로 6명, 이형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주요내용: “North Korea: A Theory”를 주제로 북한의 과거 행보를 통해 도출한 이론으로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북한 접근법과 북한의 핵 개발 동기 등에 대해 설명



< 통일부 초청 간담회 >



< 제3차 특강 >



< 제4차 특강 >

4. Fellowship 사업

마. 2024년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발표·토론 참여

- 일시/장소: 2024. 7. 25.(목) 09:00 / 국립통일교육원
- 학술회의: (발표) 미야모토 사토루·김연희 펠로 / (사회) 호리야마 아키코 펠로
 - (미야모토 사토루)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지역 안보
 - (김연희) 국제 협력을 통한 북한 사회의 변화 모색
- 주요내용: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여 통일·북한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신진학자들과 발표·토론 만남의 기회를 갖는 등 국내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가짐

바. 국내 워크숍 참석

- 일자: 2024. 7. 29.(월) ~ 7. 31.(수) * 2박 3일
- 장소: 충남 공주·부여, 해군 2함대(서해수호관) 등
- 참석자: 펠로 6명, 펠로 수료자 6명,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임을출·이형중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실무진 등
- 주요내용: 펠로 수료자들의 연구 발표와 현재 진행 중인 펠로 연구자들의 중간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서해수호관 등 안보현장 견학을 통해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가짐



< 2024년 해외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 >



< 국내 워크숍 >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가. 정세 동향

북한

- **6.28.~7.1.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및 7.1.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1차 정치국회의의 소집 (7.2.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주요의정은 ①2024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중간총화와 대책에 대하여, ②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데 대하여, ③중요부문의 사업규률을 강화할데 대하여, ④사법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⑤조직문제
- **7.1. 미사일총국,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 (7.2.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는 신형미사일이 4.5t급 초대형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사일으로써 사거리는 최대 500km, 최소 90km라고 주장
- **7.7. 김여정 부부장,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및 최전방 포사격 훈련 등 비난 담화 (7.8.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중전 북과 남사이의 관계시기에도 오늘과 같은 안보환경은 찾아보기 힘들것",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우리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 공화국헌법이 우리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는 지체없이 수행될 것"
- **7.11.~7.12. 김정은, 삼지연시 건설사업 현지지도 (7.14.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삼지연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편향들 지적 및 간부들 처벌 지시
- **7.13. 외무성 대변인, NATO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비난 담화 (7.13.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합법적권리를 훼손하는 불법문서이며 전지구적범위에서의 신랭전과 군사적대립을 고취하는 대결강령인 《워싱턴수뇌자회의선언》을 가장 강력히 규탄배격"
- **7.13. 국방성 대변인, 한미 공동성명 비난 담화 (7.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성 당국은 7.11.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지역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근원"으로 규정, "핵억제태세를 보다 상향시키고 억제력구성에 중요요소들을 추가할 것"이라 주장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7.14. 내각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당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과업 관련 보충결정서 채택 (7.15.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개변” 강조(당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의정)
- **7.16. 김정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 현지도 (7.18.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김덕훈 내각총리 등 주요 간부들 대동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실무 관련 협의회를 소집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경험을 토대로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7.18. 김정은, 러시아 군사대표단 접견 (7.19.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과 러시아 군사대표단장(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국방부 차관) 담화, “군사분야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7.19.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대외경제사업 혁신 및 관광 활성화 대책” 논의 (7.20.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7.23. 2024 美대선 관련 북한 관영매체 첫 논평 (7.23. 조선중앙통신)**
 - 7.23. 조선중앙통신은 “조미대결의 초침이 멎는가 미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제하 논평에서 “미국은 조미대결사의 득과 실에 대해 고민해보고 앞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
- **7.22. 러시아 최고검찰소대표단 방북, 러북 검찰기관 협조 강화 협정 확장·갱신 (7.23.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7.22. 김철원 북한 중앙검찰소장과 이고리 크라스노브 러시아 최고검찰소장(검찰총장) 간 회담 진행
 - 러북 간 협력 프로그램은 디지털 통화와 디지털 금융자산 이용 범죄, 부패와 공적 범죄, 환경 범죄, 정보통신기술 범죄 등 대응과 회의·워크숍 등 행사 개최를 포함 (7.23. 연합뉴스)
- **7.28. 김정은, 평안북도 신의주시·의주군 수해현장 방문 지휘 (7.29.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수재민 4,200여 명 구조한 비행사들 노고 치하, 홍수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의 일군들의 직무태만행위 질책

미국/일본

● 미국 “나토, 인태로 확장 안 해…인태 파트너와 ‘중국 우려’ 공유” (7.9. KBS)

- 마이클 카펜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유럽 담당 선임보좌관 겸 대통령 특보 “나토는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음“ ... “그러나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문제에 대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정상회의 결과물에도 반영될 것”

● 미국 “우크라이네 패트리엇 등 3천억 원 규모 추가 지원” (7.12. KBS)

-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탄약, 155mm 및 105mm 포탄, 재블린 대전차미사일 등 포함

● 한미 핵협의그룹,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 (7.12. KBS)

- 국방부 “본 공동지침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제공한다.”

●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미 대선 구도 급변 (7.22 KBS)

-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의 의무를 다하는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밝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표명

● 일본·필리핀, ‘상호접근 협정’ 서명…파병 길 열려 (7.8. KBS)

- 필리핀 마닐라 외무·방위 장관 협의(2+2회의)에서 서로 파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
- 일본 자위대 병력의 필리핀 파견 훈련 등 활동이 용이해짐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선 필리핀에 도움이 될 전망

● 일본 방위백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이 동아시아에서도 발생할 가능성 있다” (7.13. KBS)

- 중국의 군사 활동을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
-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일본 안전에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기술
-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 20년째 되풀이

중국/러시아

- **7.17. 중국,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반발, 군비통제 협상 중단 (7.19. 서울경제)**
 -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비통제·비확산 협상 중단 선언
 -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대만 무기 판매에 대응
 -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고조
- **7.21. 중국 공산당, 국유기업 중심 성장 개혁방안 전문 공개 (7.21. 중앙일보)**
 - 중국, 국유기업 중심 15개 분야 60개조, 300개 항목 개혁방안 전문 공개
 - 차기 미국 행정부의 디커플링에 대비한 행동방침 구성
- **7.23.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방중 (7.22. 아시아투데이)**
 -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23일~26일 나흘간 방중
 - 방중기간에 왕이 위원과 외교장관 회담 진행, 시진핑 주석 면담 가능성
 - 중국의 휴전 중재 행보 가속도
- **7.23. 중국, '상호 핵무기 선(先)사용 불가' 문건 발표 (7.23. 뉴스1)**
 - 중국 외교부, '상호 핵무기 선 사용 불가 제안에 대한 공작(업무) 문건' 발표
 - 22일, 2026년 제11차 NPT 평가회의의 제2차 준비위원회 개막.
- **7.24.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7.19. YTN)**
 - 서울, 제10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중국 외교부 상무부 부장,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 의견 교환
 - 지난 2021년 12월 화상회의 이후, 2년 7개월 만의 회의
- **7.18. 러시아, 간첩혐의 한국인 선교사 체포, 구금 3개월 연장 (6.18. 연합뉴스)**
 -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간첩혐의 한국인 첫 체포 사례
 -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 구금기간 9월까지 연장
- **7.23. 러시아 검찰총장 방북 (7.23. KBS)**
 - 이고르 크라스노프 러시아 검찰총장 방북
- **7.19. 러시아 북방차관 방북 (7.19. 한국경제)**
 - 김정은 접견 이후 군사협력 논의
- **7.20. 러시아, 북한과 중국, 이란을 통해 우회로 확보 (7.21. YTN)**
 - 북한 관광객은 나선시 3박4일, 사향산, 비파섬, 두만강 일정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여행사 '보스토크 인투르'가 북한당국 허가 이후 북한 관광 재개
- **7.22. 유럽, 대러제재에도 러시아 원유·천연가스 수입 지속 (7.22. 한겨레)**
 -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 연구센터(CREA) 조사 인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수출 약 7,070억유로(1,069조)

나. 해외 전문가 논평

■ Victor Cha(CSIS 한국석좌), Andy Lim(CSIS 연구원) “오물, 풍선, 그리고 한국의 통일 가치관” (7.1. CSIS)

-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광고물을 한국에 날려 보내는 게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오물을 날려 보내는 것... 이는 북한 체제 및 이들이 근거한 사상이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다는 방증
- 오물풍선이 명백한 ‘소프트 테러’지만 만약 이 풍선에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다면 한국 국민은 패닉에 빠져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오물풍선 살포는 외려 한국의 새로운 통일 정책에 대한 선제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김정은은 한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통일이라는 개념을 북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림으로써 이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
-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을 준비 중이라면 러시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탄약을 팔아넘기지는 않았을 것... 북한은 적을 교란하는 기만전술을 사용해 왔다. 만약 전쟁이 임박했다면 북한은 미래 공격을 예고하는 대신 한국전 직후와 같이 남북 평화 협상을 위장하고 나설 것

■ Condoleezza Rice(전 미국 국무장관) “푸틴과 협조 어려워… 중국 설득해야” (7.2. 극동포럼)

-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희망은 여전히 있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해야
- ‘북중러’로 묶이는 데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협력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에 나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고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 미국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은 누구든 북한이 한반도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결단할 것...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독재자와는 협상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 대니얼 호프먼(전 미국 중앙정보국 모스크바 지부장) “푸틴,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국의 ‘가시’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길 원해” (7.2. 워싱턴타임스 웹세미나)

- 푸틴 대통령이 북러협정 체결을 적극 공개한 것에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등에 러시아의 적이 되면 대가가 따를 것임을 보여주는 ‘KGB식 정보작전’의 모양새가 일부 있었다.”
-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한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가 북러 조약을 부각한 푸틴 대통령의 의도 중 하나였다.
- 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주적인 미국에 대항”하는 것을 시야에 둔 채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러시아의 후원 속에 김정은이 호전적 언사를 강화하고, '남북 평화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미국의 안보에 이전 그 어느 때 이상으로 위협을 키우는 일이 되고 있다.
- 냉전시기 미국의 강점 중 하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 외교 정책에 대해 많은 것을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극심한 당파적 분열 속에서 협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 Matthew Miller(미 국무부 대변인) “자유북한주건을 맞이하며” (7.8. 미 국무부 성명)

- 북한 체제는 강제 노동을 포함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원을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을 진전시키는데 전용하고 있다.
- 미국은 북한 정권에 의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물론 탈북자들 및 인권 옹호자들의 용기와 끈기를 인지하고 있다.
- 외국 언론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북한에서) 공포와 억압의 환경을 고조시키고 있다.
- 미국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인권과 책임 문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맹·파트너 국가와 협력할 것
- 미국은 모든 국가에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망명을 모색하는 탈북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 Andrew Yeo (미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 (7.9. 브루킹스 연구소)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
-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핵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북핵 문제를 풀어난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북한과의 접촉을 부채질할 것
- 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잠재적으로 현재 북한의 핵보유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에 반대할 가능성 존재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

■ **Fred Fleitz(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 Steve Yates(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중국정책 구상 의장) “북미 대화 전제조건은 러시아 지원 중단…김정은, 미리 조치 취해야” (7.9. KBS)**

-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과 관련해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 한미 관계의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동맹을 접한 중국에 맞서는 것
- 남중국해 갈등과 관련해선 동맹들이 해안 경비 역량을 강화해야
-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선 약간의 협상이 있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핵우산 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고, '전술핵 재배치'도 해법은 아니다.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내 긴장이 크게 개선될 것

■ **Kurt Campbell(미국 국무부 부장관) “美,韓·日·호주·뉴질랜드 ‘IP4’ 제도화 원해” (7.11. KBS)**

- ('인도-태평양 4개국'이라는 뜻인 IP4(Indo-Pacific 4)는 범대서양 안보공동체인 나토(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협력 파트너 그룹을 부르는 명칭)
- 북러 간에 일어난 일의 모든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측 파트너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우려하고 경계한다.
- 우리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약속한다.

■ **Tao Wang(UBS 중국 경제 분석가) “트럼프 재집권해 60% 관세 부과 시 중국 경제성장률 반토막” (7.15. Bloomberg)**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것
-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 포인트 깎일 것
-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다른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생산도 제3국에서 하도록 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을 줄일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제3국들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 **Roland Walker(영국 육군 참모총장) “3년 내 전쟁 발발 위험” (7.24. 연합뉴스)**

- 영국이 "격변의 축"으로 인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적대 세력에 의한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계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 서방에 보복을 감행할 수 있으며, 중국은 타이완 탈환,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노리고 있음.
- 영국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보다 규모가 세 배 더 큰 적군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 영국 육군의 전투력을 2027년까지 두 배, 2030년까지 세 배로 강화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1. IFES 동정

■ 박재규 총장, 김영호 통일부장관 등 관계 전문가들과 만찬

- 일시/장소: 2024. 7. 1.(월) 19:00, 롯데호텔서울 샤롯데 스위트
- 참석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영호 통일부장관, 스캇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장, 쉹 샤오허 중국 인민대 교수, 나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미하엘 라이터러 전주한유럽대사,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前주미대사), 유영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 전재성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 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주 동아시아연구원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 내용: “한반도 통일의 현재와 미래(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의 시각)” 등 최근의 한반도 정세 논의



2. 언론 속의 IFES

■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문화일보 인터뷰 전문 (2024. 7. 18.)

“북핵억제 집중하며 대화 모색… 김정은 도발 ‘투트랙’ 대응을”



< 박재규 (왼쪽) 경남대 총장 / 김선향 (오른쪽)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 백동현 기자

■ 요즘 어떻게 - 박재규 경남대 총장·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부부

“서로 기대며 55년 결혼생활 / 관료·교육자로 행복한 동행 / 아내는 요즘 연작시집 펴내 / 박종규 前
경호실장이 만형 어릴적 만날때마다 업어줘”

“내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당신 차례인데, 나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아요.”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아내인 김선희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며 장난치는 소년처럼 씨익~ 웃었다.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최근 진행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였다. 박 총장의 농담 속에 1944년생 갑장인 아내에 대한 도타운 애정이 묻어났다.

김 이사장은 남편의 농에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오래 함께 살면서 제가 남편에게 많이 의지해왔다”고 했다. 그는 1969년 결혼 후 반세기가 넘는 동행의 비결에 대해 “둘이 가는 길이면 덜 외롭고 덜 힘들 테니 역경도 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평생 집안일을 걱정해본 적이 없다”며 “젊은 시절 외국 출장 중 집이 이사 갈 때도 있었는데, 공항에서 전화를 걸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다”며 웃었다. 김 이사장은 남편이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동·서 냉전 시절에 공산권 국가를 다녀오곤 했지만, “한 번도 위험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1999.12~2001.3)을 지내며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었다. “정상회담 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군사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측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용순 노동당 대남비서가 제 고집에 못 이기겠다고 하더니 모처에 있는 김 위원장이 저를 보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하더군요. 평양에서 밤 기차를 타고 어딘지 모를 곳으로 밤새 가서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자강도였지요.”

박 총장은 “북한이 지구 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 탓에 핵에 매달린다는 이야기를 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핵억제에 집중하며 대화 모색을 하는 투-트랙(Two-track)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는 장관 퇴임 후 경남대 총장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학교를 이끌고 있다. “서울과 창원을 왕래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교정에서 학생들을 보는 게 즐겁습니다. 우리 대학 동문들이 졸업 후 각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박 총장은 ‘피스톨 박’이라고 불렸던 박종규(1930~1985)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3형제 중 장남인 형님은 12번째인 저와 나이 차가 많았는데, 어릴 적에 저를 볼 때마다 업어주셨습니다. 그 시절 형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박 총장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해 온 김 이사장도 교육자로 헌신해왔다. 경희대, 경남대 등에서 영문학 강의를 하다가 퇴임한 후 북한대학원대학교 운영을 맡아왔다.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는 도심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캠퍼스 환경이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자료를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김 이사장은 대한적십자사(한적) 고액기부자모임(RCHC) 고문 역할도 하고 있다. 그는 한적 부총재, 총재 직무대행을 지낸 적이 있다. “남편이 장관 일을 할 때 한적에서 봉사활동을 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2. 언론 속의 IFES

그는 영문시집을 번역하는 한편 자신의 시집을 펴낸 시인이기도 하다. 그가 주한 헝가리문화원에서 시를 낭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자작시를 영문으로 옮겨서 유창한 발음으로 읽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운문일기’라는 제목으로 연작 시집을 펴내고 있다. “특별한 날의 일기를 운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쏠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인생에서 붙잡고 싶은 것들을 시로 혹은 사진으로 기록해서 기억하려 합니다.”

김 이사장은 일상에서 심신의 활력을 지키는 비결로 ‘걷기’를 들었다. “저를 무겁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가볍게 움직이고 싶어요. 점심 후 사무실 곁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도 시내를 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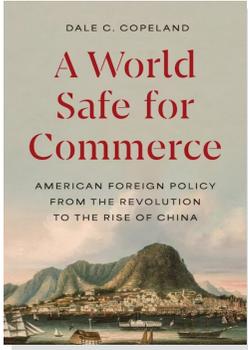


〈박재규 총장이 4세 때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 처음 올라와 당시 육군본부에서 근무했던 박종규(오른쪽) 형을 만나 찍은 사진〉 박 총장 제공

문화일보 장재선 전임기자 jejei@munhwa.com

3. IFES 도서관

가. 추천도서



제 목: A World Safe for Commerce (상거래를 위한 안전한 세상)

저 자: Dale C. Copeland (데일 C. 코플랜드)

출간일: 2024년 2월 6일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

쪽 수: 504쪽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정치학자 코플랜드(Dale C. Copeland)의 『A World Safe for Commerce』는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장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와 사건을 논하고 있다. 방대한 역사적 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요인이 미국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앞세워 미국 주요 외교·무역정책의 역사와 ‘동적 현실주의’(dynamic realism)라는 그의 이론적 연구를 다루고 있다. 책의 부제도 ‘혁명부터 중국의 부상까지 미국 외교정책’(American Foreign Policy from the Revolution to the Rise of China)이다.

동 도서는 서론에서 최근 10년간의 세계정세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 및 이에 따른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를 다루며, 1990년대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제질서의 낙관론이 새로운 냉전과 군사적 갈등의 우려로 대체되었음을 언급한다. 미국과 중국 간 외형적 긴장도와는 별개로 S&P 500에 상장된 미국 기업들 해외 매출의 원천은 중국이다. 이는 양대 강국의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관계가 더 악화되더라도 양국이 심각한 갈등의 위기에서 물러날 수 있는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디커플링’은 따라서 비현실적이다. 대신에 저자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균등하지 않은)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플랜드는 ‘동적 현실주의 이론’(Dynamic Realist Theory)을 제시하며, 이는 기존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를 통합하고 확장한 것이다. 경제적 동기를 강조하는 이 이론은 국가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상업적 영역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동적 현실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이 국가들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에 국가들은 생존하기 위해 권력의 극대화를 공격적으로 추구한다는 주장으로 존 미어샤이머가 대표적인 학자이다)와 방어적 현실주의(국가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동맹을 통해 군사력을 증가시키려한다는 주장으로, 케네스 왈츠가 대표적 학자이다) 사이의 중간 지대이다. 왈츠와 미어샤이머가 주로 국제 시스템의 구조와 군사적 힘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코플랜드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의 외교 정책을 설명한다. 그리고 왈츠와 미어샤이머는 국가들이 공격적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플랜드는 국가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공격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이기도 할 수 있다고 본다.

3. IFES 도서관

코플랜드의 이론은 국제 관계와 외교 정책 분석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요인에 대한 과도한 강조, 복잡한 국제 시스템의 단순화, 예측의 어려움, 사례 연구의 편향 가능성, 이론의 일반화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매우 철저하고 학문적으로 탄탄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동적 현실주의 이론은 외교정책 분석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론을 뒷받침하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특히, 미국 외교정책의 상업적 동기를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자유주의적 또는 이념적 해석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는 독자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와 미래의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흥미가 있는 독자들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저자는 또한 미국 독립전쟁부터 냉전기까지의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검토한다. 일례로, 독립전쟁의 기원, 1790년대에서 1848년까지의 미국과 세계, 1850년부터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까지의 외교정책,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의 기원 등을 다룬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념적 및 국가 안보 동기와 국내 정치적 압력이 미국 혁명 발발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주요 강대국이 시장, 자원 및 해외 투자의 접근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자연스러운 구동력이 주요 역할을 했다. 현재 그 임무에 대한 미국의 주요 장애물은 중국이다. 그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중국의 정책이 지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불안과 미국의 의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구동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1년 구소련이 붕괴될 때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의 15%에 불과했다. 이제는 중국이 적어도 경제적으로 미국을 언제 추월하느냐는 문제만이 남아 있다. 21세기는 쇠퇴하는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의 지정학적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이다. 비판적 중국 전문가들(Sino-American pessimists)은 중국이 팽창주의 경로에 접어들었기에 미국이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고 격하게 주장한다. 이는 저비스(Robert Jerivs)가 1976년에 발표한 국제정치적 억제모델(deterrence model of international model)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과 대척점에 서있는 낙관론자들(Sino-American optimists)도 있다. 이들은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느냐에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코플랜드는 세력이 균등할 때 전쟁이 방지된다고 믿는 세력균형론자이기보다는 세력이 균등해지려고 할 때 전쟁이 발생한다는 세력전이론을 지지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정점(peaking)을 향해 치달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 다소 위험하게 보일 수 있다. 혹자(특히 Hal Brands와 Michael Beckley)는 중국이 정점을 지났기에 이제는 이를 유지할 목적으로 대만 점령,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침략을 도모할 것이라는 대담한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코플랜드는 중국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으며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합리적으로 추구해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면서까지 추월하지 않으리라고 예견한다. 미국으로 보면 코플랜드의 '온건한' 전망이야말로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게다가 중국의 우호국들은 기껏해야 북한,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빈국들인 반면에 미국의 대다수 우호국들은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적으로 윤택하다. 중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코플랜드는 미중 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는 국제 관계에서 핵심적이고 종종 무시되는 요소이다"고 말하면서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갑작스럽게 사업과 자원을 차단하여 미래 상업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 전쟁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더 큰 갈등, 심지어 전쟁까지 피할 수는 없다. 미래 비즈니스

를 위한 기회는 여전히 많으며, 이는 현재 미국 정책의 의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500쪽이 넘는 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미국이 시진핑의 중국을 두려워 할 이유는 없다’이다. 미국은 첨단 분야에서 중국을 제어할 능력이 있다고 저자는 단언한다. 그러면서 오늘의 중국을 프랑스 루이 14세 시기(1668-1688)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루이 14세는 표면적으로 그의 국가와 자신을 위한 ‘영광’에 집착한 것처럼 보였다. 이는 그가 1668년 이후 시행한 중상주의 정책에서 특히 드러난다.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의 상업적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시진핑의 정책 역시 국가주의와 지역 시장을 결합하려는 의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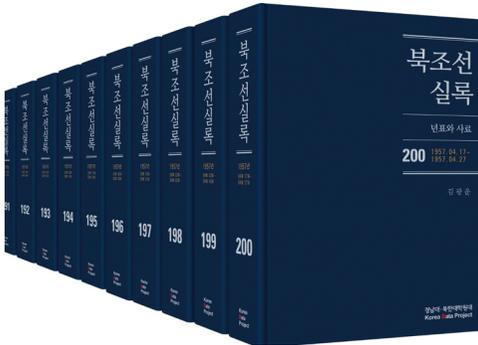
특히, 저자는 시진핑도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역 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제적 변형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시진핑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지도자들은 미사일을 발사할 위기를 초래할 만한 어떤 갈등도 일으키지 않으려하기에 상대 국가의 미래 무역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외교적 움직임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정책이 협력을 촉진할지, 아니면 불신과 적대감의 악순환을 초래해 파괴적인 전쟁으로 이어질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잘 알고 있는 워싱턴과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무역과 미래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개선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에서 평화는 더 많은 수십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외교적 접근 방식은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며, 긴장 완화를 통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기대를 조정하고, 긍정적인 무역 관계를 형성하며, 미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핵심임을 저자는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도자들은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끝을 맺는다.

시선은 거리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코플랜드의 분석은 현재 미·중 관계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 정책결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세계화의 정점은 지났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이다.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모두의 이익일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은 여전히 이익을 추구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면에서 이 책은 미국 외교정책의 복잡성과 다층적인 동기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외교정책 연구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 책을 미·중 대결과 그것에 관한 사회과학 영역의 지식 자체를 추구하기 보다는 관련된 다양한 시각(관점)의 단서를 얻고, 거기서 출발하여 재미난 물음들을 따져보고, 나아가 토론해 보려는 지적 호기심을 지닌 독자들에게 권한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핵연구센터장)

나. 『북조선 실록: 연표와 사료』 발간



제 목: 『북조선 실록: 연표와 사료』
저 자: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출간일: 2024년 7월 29일
쪽 수: 800쪽

경남대, 북한대학원대와 북조선 실록 200권째 발간… 북한 연구 새 지평

2018년 1차분 30권으로 첫발 … 북한 연구 기초 활용할 사료 연도별로 집대성

20년 이상의 준비 과정을 통해 6여 년 만에 200권째를 맞이한 ‘북조선실록’은 북한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사료를 연도별로 집대성하며 북한의 주요 기관지인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평양신문’부터 분야별 잡지, 해외 정기간행물, 외교문서·일지 등을 수집한 뒤 이를 연표식으로 정리했다. 또 관련 사진과 각주를 넣어 자료의 신뢰성을 더했다.

‘북조선 실록’에는 경남대 박정진 서울부총장, 북한대학원대 신종대 교수, 박순성 전 동국대 교수, 서울대 정용욱 교수,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국사편찬위원회 이만열 전 위원장,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장,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 등 국내 저명 학자들이 참여했다. 또 미국 Bruce Cumings 전 시카고대학 교수, 일본 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 水野直樹 교토대학 명예교수, 중국 金宇钟 전 흑룡강성 당사연구소장, 沈志华 화동사범대 중신교수, 朴灿奎 연변대 교수, 郑继永 복단대 교수 등 해외 최고 학자들이 협력했다.

‘북조선 실록’간행의 기획, 사료 선별 각주, 집행 총괄을 맡은 김광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는 “자료집 1권 평균 분량은 글자 수 980,000자, 800쪽이며, 200권 전체의 글자 수는 대략 196,000,000자로 이미 ‘조선왕조실록’ 한글 번역본을 훨씬 넘어선 방대한 분량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 나눔서가 운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도서 나눔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연구자들이 북한·통일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 기간/장소: 2024년 7월 ~ 8월 / 도서관 앞 로비 (정산홀 앞)
- 대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 교직원, 북한대학원대 학생, 극동문제연구소 구독회원, 세미나 포럼행사 참여자 등
- 도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 발간자료, 북한문헌 연구 자료집 등



4. 예정사항

가. 제10차 삼청포럼 (2024. 8. 27. 화)

제10차 삼청포럼

트럼프(Trump): 사람, 정치, 정책

- 일시: 2024년 8월 27일 (화) 19:00 - 20:30
 -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발표자: 조병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 20:00-20:30
질의응답 (현장참가자)

* 사전접수

bee49@kyungnam.ac.kr / 02-3700-0843

이름 / 소속·직위·연락처

우측 QR링크 또는 E-mail로 제출 신청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
영국 서섹스대 국제정치학 석사
서울대 외교학 학사

전 아시아정당국제대회(ICAPP) 사무총장
전 국립외교원장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전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담당 대사
전 외교통상부 대변인
전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
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저서

『트럼프의 귀환: 위기인가 기회인가』(2024)

『한국의 불행한 대통령들』(공저, 2022)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2019) 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서울특별시 중로구 북촌로 15길 2(삼청동)

TEL. 02-3700-0700

ifes@kyungnam.ac.kr

<https://ifes.kyungnam.ac.kr>



나. 중국 상해 외국어대학 국제관계 및 공공사무대학 원장 등 일행 방문

- 일자: 2024. 8. 2.(금)
- 내용: 동북아정세변화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협의

다. “2024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방문

- 일자: 2024. 8. 14.(수)
- 참가자: 6개국 외국인 학생 53명

라. Fellowship 사업

- 펠로 특강 1회(5차: 8. 20. 화)
- 강연자: 제임스 히년 서울 UN 인권사무소장
- 연구내용 중간 발표회 등

5. 안내사항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연회비

- 학생회원: 30,000원/일반회원: 50,000원/기관회원: 10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 이용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